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가 났다

역사·문화 뿌리 같이해 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참여
상생발전·연계·협력 사업
체계적·효율적 추진 협의

진만권역의 보존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미래향적 해양관광 수요창출과 균형개발을 위해 4개 군 공동조항 설립을 통한 ‘특량만강진만권 연안 보존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특량만강진만권 연안 보존개발 프로젝트는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포함한 산

업, 관광, 유통분야 등 다양한 전략사업의 발굴과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개 군의 군수와 의장들은 “천혜의 환경과 잠재력을 지닌 특량만과 강진만 보존 및 개발의 무게중심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량만과 강진만이 다가올 미래해양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자 대상 지방세 감면 등 교육

구례군은 최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업인 대학 교육생과 체류형 영농창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제도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실습, 체험 등을 지원하는 전남 유일의 원스톱 귀농사관학교다.

이번 교육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주택개량 감면, 귀농인의 농지 취득 감

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감면 등 교육생에게 필요한 감면규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군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에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군, 11월말까지 이장단·공무원에 ‘교통안전교육’

보성군은 지난 25일 군민의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회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말까지 이장단, 각 읍·면·사회·기관단체 등 청·장년층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처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10여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도 청·장년층 교통안전교육 직후 미래

안전리더 양성을 위하여 관내 13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8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례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그동안 노년층의 안전문화의식 향상과 폭염피해 저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182개소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1만8124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88회에 걸쳐 교통사고, 화재예방,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65가구에 ‘사랑의 쌀’ 100여t 공급

곡성군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어진 간벌재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쌀 나누기’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달 초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를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말까지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총 65가구에 100여톤의

쌀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근기 군수는 지난 25일 곡성읍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가 직접 쌀을 배달하기도 했다.〈사진〉

곡성군 관계자는 “쌀 나눔과 함께 지난 9월부터 간벌재를 활용한 톱밥을 과수·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151농가에 286t을 공급해 겨울철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 섬진강 가로지르는 짚라인 체험장 오픈

오곡면 송정리에 비행경로 360m 2개 라인 구성
인근 기차마을 등 연계 지역 관광산업 활기 띌 듯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60-2 일대에 짚라인 체험장인 ‘짚라인곡성’〈사진〉이 정식 오픈했다.

시행사인 짚라인곡성에 따르면 짚라인 곡성은 대지 686㎡, 연면적 464.30㎡ 규모의 4층 펜션 및 상가 건물을 겸비한 짚라인 시설로, 비행경로는 360m 길이 1개 코스를 2개의 라인으로 구성해 공중에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됐다.

사업장 인근에는 섬진강 출렁다리, 도깨비 마을, 압록 유원지, 레일 바이크, 천문

대, 기차 마을, 패러글라이딩 및 관광 열차 등의 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신규 시설 시공은 10월 기준 전국 누적 약 30개 짚라인 시설을 시공한 바 있는 짚라인코리아가 맡았으며, 완공 후에도 짚라인곡성은 짚라인코리아의 프랜차이즈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덕현 짚라인곡성 대표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섬진강변에 위치해 섬진강을 건너는 공중 비행의 스릴감과 수려한 경치가 주는 경이로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이색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월평균 이용객이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은 곡성 군

민과 곡성으로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레포츠 문화를 제공해 곡성 지역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군, 내년부터 도선요금 1000원으로 단일화

고흥군은 2019년 1월부터 육지와 도서지역을 오가는 도선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도선요금 단일화 사업

은 민선7기 송귀근 군수 공약사항으로, 향후 사업이 시행되면 매월 4000여명의 이용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입도객 증가 효과로 이어

져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5일 도선운영위원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은 연흥도와 득량도, 시산도 등을

오가는 도선 6척이 운영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계획 중”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1000원 버스와 더불어 도선요금도 1000원으로 단일화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시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